

“광주학생독립운동 공훈자 발굴 나서야”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학술대회

3대 항일운동... 제대로 평가 못받아

독립유공자 훈포장 등 누락자 많아

광주학생독립운동(11·3)을 민족운동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공훈자(功勳者)를 적극 발굴해 포상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민족운동)으로 꼽히지만, 독립유공자 포상자 규모가 적고 운동 주도 학생 등이 포상에서 누락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정부의 독립운동가 선정기준이 성인을 대상으로 세워져 당시 학생들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단다. 정부의 공훈자 발굴 의지가 약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계형 국민대 특임교수는 ‘광주학생운동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현황과 공훈사업 개선방향’이라는 발제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국내 최고의 독립운동이었다”며 “그러나 독립유공자로서 포상받은 숫자라면 본다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정부가 선정한 독립유공자는 모두 1만4879명이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2명, 독립장 824명, 애국장 4275명, 애족장 5602명, 건국포장 1227명, 대통령표창 2829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훈포장 수여자는 212명으로, 대한민국장 1명, 독립장 4명, 애국장 23명, 애족장 112명, 건국포장 39명, 대통령표창 33명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 회원 227명 중에서도 훈포장을 받은 인물은 69명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독립유공자 전체 규모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훈포장 수여자 규모가 극히 작고, 선정됐어야 할 분들이 누락됐다. 성격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과거 정부의 미흡한 선정 기준과 부족했던 유공자 발굴 의지에서 찾았다.

이전 정부의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은 최소 6개월 이상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로 인해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사실이 증명되면서 숨겨진 전까지 친일 행위, 사회주의 활동 등 행적이 문제가 없어야 했는데,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학생 주도의 독립운동이라는 본질을 반영하지 않은 조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은 일기 등 간접 자료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은 수형 기록이 없더라도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했다면 포상하기로 했다. 수형·옥고 3개월 이상 증명 기준도 완화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하도록 했다. 사회주의 활동자 포상은 지난 2005년 3·1절에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54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개선된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다 4년간 옥살이를 한 장재성(광주고교 졸업생) 선생조차 해방 이후 행적을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선된 선정 방침을 토대로 이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포상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가 작성한 ‘광주학생사건범죄자지원조’에 언급된 명단, 한민족독립운동사자지표에 언급된 서울지역 시위 주도자 명단, 각 학교 퇴학자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게 올해 바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백~수천명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유공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목포대·동신대 열람석 보유율 20% 기준 미달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 목포대, 동신대는 학생 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이 20%에 못 미쳤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각 대학은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했다.

조선대는 정원 1만7779명에 2546석(14.3%), 목포대는 6648명에 999석(15.0%), 동신대는 6376

명에 1134석(17.8%)을 보유했다. 송원대와 목포해양대는 각각 20.1%로 기준에 턱걸이했다.

대학별로 호남대 25.9%, 조당대 26.0%, 순천대 26.2%, 광주대 29.0%, 전남대 29.3%, 광주여대 31.0%, 남부대 38.9% 등을 기록했다.

또 목포가톨릭대(49.6%), 광주교대(50.9%), 광주과학기술원(83.4%), 광주가톨릭대(112.5%), 호남신학대(125.8%) 등은 보유율이 양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하구 수질 개선하려면 독 개방 물길 열어야

영산강환경청 포럼 신용식 교수 주장

영산강 하구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독 개방으로 물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식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학과 교수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개최한 ‘영산강 하구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영산호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하구 수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구독 개방으로 바닷물과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과거 측정자료를 토대로 물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모델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영산강 하구 수질은 물이 흘러야만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다만 하구독 개방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

신 교수는 “강물은 염도가 높아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바닷물은 반대로 염도가 낮아져 양식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구독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재해 방인데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영산강 하구 수질과 생태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연말 안료를 목표로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이날 해양수산부,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 실무진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고, 내달 말 두 번째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깊어가는 가을 정취 찰칵!

24일 오후 화순중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붉게 물든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8. 11. 16 FRI — 11. 17 SAT
대구광역시 일원

11월 16일(금) Part1. 달빛소통 14:00~16:00 탐방프로그램 (김광석길, 방천시장 등)
Part2. 달빛나눔 17:00~21:00 개막식 / 멘토특강 / 달빛콘서트

11월 17일(토) Part3. 달빛기쁨 09:00~14:00 투어프로그램 (대구 중구 근대로 골목 등)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중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8. 11. 13(화)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숙박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달뜨기 18:28
해질 17:46 달지기 06:56

농작물 관리 유의하세요
일부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8/21	보성	구름많음	4/19
목포	구름많음	10/20	순천	구름많음	9/21
여수	구름많음	12/19	영광	구름많음	6/21
나주	구름많음	4/22	진도	구름많음	7/20
완도	구름많음	10/20	전주	구름많음	7/21
구례	구름많음	4/21	군산	구름많음	7/20
강진	구름많음	5/21	남원	구름많음	4/21
해남	구름많음	4/20	흑산도	구름많음	14/19
장성	구름많음	5/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남동~남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5	02:17
	19:58	14:44
여수	간조	만조
	03:01	09:22
	15:19	21:33

◇ 주간 날씨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11/1(목)
12/19	9/16	8/18	8/15	6/15	5/15	6/17

◇ 생활지수

- 관심
- 보통
- 보통